

# ‘박연차 수사’ 종착지 결국 노무현?

## 조카 사위 전달 500만달러 연관성 수사 김무성·권경석 등 친박계도 조사 선상

검찰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박 회장의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권경 씨 사위에게 흘러들어 간 것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박연차 리스트 뇌관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친박계 좌장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박연차 리스트의 뇌관은 그 폭발력을 더해가고 있다.

△박연차 “모든 것 털어버리겠다” = 박 회장은 동향(同鄉)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와 지난달 26, 27, 30일 서울구치소에서 6시간에 걸쳐 가진 면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든 뭐든 간에 감출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다 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또 “(검찰이 압수한) 여비서 다이어리에 누구를 만났다는 내용과 돈 액수가 적혀 있지만, 극히 일부만 적혀 있다”면서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개를) 결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뇌관=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형 권경 씨의 사위에게 흘러들

어 간 것으로 포착한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돈이 전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노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갔다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권경 씨의 만사위 연모 씨 계좌에 입금했다.



국민평화민주연대 창립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국민평화민주연대(평민연) 창립대회에서 장성원 전 의원(왼쪽부터),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장성민 회장, 이영재 의장 등이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각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보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국내 대기업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건호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 씨에게 500만 달러가 전달됐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봉하(노 전 대통령) 쪽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이 들어간 사실을 박 회장의 진술 등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APC 관련 계좌를 아직 넘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친박계 좌장인 한나라당 김부성 의원과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인 권경석 의원이 박 회장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후원금 명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는 박 회장 과 전혀 관계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권 의원은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검찰이 또 다른 친박 중진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에 대한 후원금 내역 제출을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어, 검찰이 친박 중진들을 비롯해 부산·경남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 한나라 노무현 공세 모드 전환 민주당 여권 고위층 수사 촉구

## ■ 박연차 수사 확대… 정치권 혼돈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가 일파파로 확산하면서 한나라당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갔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깨끗한 대통령이었던 지 의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국민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한 주요 당직자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물증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결국 몸통이 어디 인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했다.

△민주당=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내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박연차 리스트 수사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전략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자임하면서 한나라당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갔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깨끗한 대통령이었던 지 의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국민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한 주요 당직자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물증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결국 몸통이 어디 인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했다.

△민주당=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내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박연차 리스트 수사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전략만

을 논의했다. 적전 분열을 보여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자유발언 대신 예정된 발표자들이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규탄과 4월 임시국회의 안건 설명만으로 공개회의가 끝났다.

그리고 검찰, 청와대 항의방문 등 강경대책을 자제한 채 4월 국회가 열리면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요구 등 원내 활동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으로 돌아가기보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쪽을 택했다. 나아가 여권의 고위층 수사를 촉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박연차 리스트가 70명에 달하고 검찰과 여권 실세도 연루됐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완전 공개해서 차별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결단’ 앞둔 丁 전주행 검토 정동영 불출마 설득할 듯

## 추경안 29일 처리 임시국회 일정 합의

정동영(DY)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 공원에 대한 정세균 대표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정 대표는 ‘덕진 공천 불가’란 정면돌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로서 당이 사는 길을 생각할 것인데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조만간 DY의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전 주로 직접 내려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측근은 “할 도리를 다해 설득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락공천할 마

방한 후보가 없다는 것. 정 전 장관과 맞상대하기 위해 전락공천을 요구하는 유망한 인사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 대표가 막판에 현실론 쪽으로 극적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공천배제시 엄청난 당내 분란이 예상되는데다 조기사퇴론 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마저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텃밭 두곳 모두 위협해지는 등 재보선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측근은 “심사숙고 중이며 최종 순간까지 기다린 뒤 후보등록 기간(14~15일)이 임박해서야 결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1일부터 30일까지 합달 동안으로 하고 첫날인 1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데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오는 6~10일 닷새간 정치(6일), 외교·통일·안보(7일), 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는 1일과 17일, 29일과 30일 4차례 열기로 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연차 미술품 구입에도 ‘큰 손’

# 봉하마을 뒤숭숭… 盧 전 대통령 침묵

김환기 그림 2점 10억에 사 형은 박수근 ‘빨래터’ 매입

여·아를 가리지 않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큰 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미술품 구입에도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 4월 리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뒤 10억여 원으로 김환기 화백의 그

림 2점을 사들였다.

1913년 신안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1963년 미국에 건너간 이후 1974년 뉴욕에서 뇌출혈로 타계했고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박 회장의 형 박연구(64) 삼호산업 회장이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를 구입한 것을 놓고 박 회장이 형의 이름을 빌려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박연차(구속)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31일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이날 마을회관이나 슈퍼 등에 삼삼오오 모여 검찰의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측근까지 좁혀오는 최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착잡한 마음을 나타냈다.

봉하마을 입구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내건 ‘할내십시오, 존경

하고 사랑합니다”, “봄은 당신에게서 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나 실제 분위기는 한겨울처럼 쌀렁했다.

봉하마을 이장 이병기 씨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 착잡하다. 마을 주민들도 밖으로 크게 내색하지 않지만 모두 뒤숭숭해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언론과의 통화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저 밖 출입 역시 삼가고 있다.

### 출산 힘 연세

출산의 힘은 연세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 강사진이 지도하는 출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출산 준비

출산 준비는 출생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생 전부터 출생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생 전부터 출생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비용

출산 비용은 출산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비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비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후기

출산 후기는 출산 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후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후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상담

출산 상담은 출산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상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상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보험

출산 보험은 출산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보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보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지원

출산 지원은 출산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OUTZ

OUTZ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성경련

자신감을 잃은 30~60대 남성들을 위한 남성기 회복을 위한 특별한 '맥스'를 제공합니다. 맥스에는 다양한 효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발목목재의 효능을 남성기 회복에
- ▶ 강한 힘과 빠지는 자신감을
- ▶ 천연발목목재로 안심하고 섭취

맥스

TEL: 010-8000-8149